5·18 광주에서 질 순 없지…KIA, 두산에 스윕승

한준수 10회말 끝내기 5-4…주말시리즈 싹쓸이 등 4연승
승률 5할 회복 '공동 4위' 유지…상위권 도약은 '지금부터'

'농군패션'으로 심기일전한 KIA가 시즌 첫 스윕과 함께 4연승에 성공했다.

KIA 타이거즈가 1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6차전에서 연장 10회 승부 끝에 5-4 승리를 거뒀다. 전날 두산과의 더블헤더 1·2차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던 KIA는 시즌 첫 스윕에 성공했다. 최형우의 제안으로 '농군패션'을 선보인 지난 15일 롯데전부터 4연승 질주를 하면서 공동 4위 자리를 지켰다.

선발 김도현이 첫 4일턴 등판에서 101구의 공을 던지면서 6이닝 8피안타(1피홈런) 2사사구 4탈삼진 3실점으로 선발 역할을 완수했다.

매이닝 주자는 내보냈지만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마운드를 지키자 야수들이 공수에서 김도현을 도왔다.

3회초가 승부처였다.

김태군이 두산의 발을 묶으면서 김도현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선두타자 조수행이 우측 2루타로 출루한 뒤 정수빈의 번트가 나왔다. 공이 포수 앞에 떨어졌고, 공을 잡은 김태군이 바로 3루 송구를 하면서 발빠른 주자 조수행을 잡아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보내기 번트에 실패한 정수빈이 이어 도루 시도를 했지만 이번에도 김태군에 막혔다. 김태군과 유격수 박찬호가 좋은 호흡으로 정수빈을 태그하면서 투아웃을 만들었다.

김도현이 이어 케이브에게 볼넷은 허용했지만 양의지를 상대로 2루 땅볼을 유도하면서 실점 없이 3회를 끝냈다.

이후 두 팀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4회초 김도현이 1사에서 양석환에게 2루타를 맞은 뒤 강승호의 적시타로 선제 실점을 했다.

4회말에는 KIA가 오선우의 투런포로 2-1을 만들었다.

5회초 두산 정수빈이 동점 솔로포를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자 KIA가 5회말 선두타자 박정우의 안타를 시작으로 김도영의 2루타를 묶어 다시 4-2로 달아났다.

그러나 두산도 6회와 7회 1점을 만들면서 4-4의 균형을 맞췄다.

결국 불펜싸움에서 KIA가 승리를 낚았다.

KIA는 전날 두산과의 더블헤더에서 이준영·조상우·정해영을 연달아 투입하면서 3명의 필승조 없이 이날 경기에 나섰다.

김도현이 6회를 책임지고 물러난 뒤 김기훈-김건국-장재혁이-윤중현이 투입됐다. 김기훈이 연속 안타를 내줬고, 김건국은 김재환의 타구에 종아리를 맞아 교체되는 등 악재가 겹쳤지만 윤중현이 공격적인 승부로 승리의 주역이 됐다.

혼돈의 7회 2사 만루에서 등판한 윤중현이 강승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실점을 막았다. 8·9회까지 윤중현이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키는 사이 두산도 최지강의 KKK쇼로 KIA의 끝내기를 저지했다.

결국 경기는 연장으로 이어졌고, 10회초 전상현이 등판했다.

강승호를 1루수 파울플라이 아웃으로 잡은 전상현이 박계범의 대타 김인태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다. 조수행을 6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잡으면서 투아웃이 됐지만 정수빈의 땅볼 타구를 쫓던 2루수 김선빈의 포구 실책과 함께 2사 1·3루가 됐다. 전상현은 상대 외국인 투수 케이브와 8구 승부를 한 끝에 중견수 플라이로 돌려세우면서 10회초를 정리했다.

케이브의 타구를 잘 처리했던 중견수 김호령이 10회말 선두타자로 타석에 섰다. 대수비 이후 첫 타석을 맞은 김호령은 박치국의 초구를 공략해 우중간으로 공을 보내고 2루까지 향했다.

이우성의 보내기 번트가 실패하면서 주자는 움직이지 못하고 아웃카운트가 올라갔다. 김규성의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1사 1·2루, 타석에 한준수가 섰다.

초구 파울 뒤 2구째 스트라이크를 지켜본 한준수는 볼을 하나 지켜보면서 호흡을 골랐다. 그리고 한준수가 풀카운트까지 가는 승부 끝에 8구째 직구를 중견수 뒤로 넘기면서 연장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준수는 "최근에 많이 힘들었고 생각도 많았는데 기분 좋게 끝내기가 나왔다. 끝내기 타석에서 높은 볼을 피하고 나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에서 규성이 형이 변화구로 나갔다. 무조건 직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비했다. 그래서 높게 오는 공에도 반응하지 않고 칠 수 있었다. 자신 있었다"며 "어제 경기 끝나고 연습을 하면서 좋은 느낌이 왔었다. 교체로 들어가서 첫 타석에서도 괜찮았다. 이 느낌을 쭉 살려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연장 10회말 1사 1, 2루에서 KIA 한준수가 끝내기 2루타를 치고 김규성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의 박인혁(가운데)이 18일 포항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44분 결승골을 넣은 뒤 조성권과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포항에 설욕

K리그1 14R 1-0 승…박인혁 후반 44분 골 '시즌 첫 골'

광주FC가 포항 안방에서 설욕에 성공했다.

광주FC가 18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1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부상 악재와 페널티킥 실축을 딛고 만든 기분 좋은 승리였다.

지난 3월 22일 4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6분 나온 조성권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2-3역전패를 기록했던 광주는 적지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고, 득점에서 앞서있던 포항과 자리를 바꿨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부상 악재가 발생했다.

김진호가 볼 경합을 위해 움직이다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서 들것에 실려 나왔다. 김한길이 급히 그라운드에 투입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초반 흐름이 전개됐다.

페널티킥 실축 악재도 박생했다.

전반 종료를 앞두고 아사니가 페널티 박스에서 경합을 하다가 조르제 걸려 넘어졌다.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아사니가 직접 키커로 나서 왼발로 골대 오른쪽을 노렸지반 포항 골키퍼 황인재가 방향을 읽으면서 공을 막아냈다.

하지만 승리를 광주 차지였다. 박인혁이 해결사가 됐다.

후반 44분 프리킥 상황에서 최경록이 왼쪽에서 올린 공을 문전에 있던 박인혁이 헤더로 연결하면서 굳게 닫혀있던 포항의 골대를 뚫으면서 시즌 마수걸이 골로 팀 승리를 불렀다. /김여울 기자 wool@

KIA 정해영, '국보' 선동열 소환

타이거즈 첫 통산 134세이브 …한화 폰세 18K, 34년만에 '선동열과 타이'

마운드 기록 행진 속 '국보' 선동열의 이름이 회자됐다.

전국 5개 구장에서 더블헤더 일정이 진행된 지난 17일 광주와 대전에서 새로운 마운드 기록이 탄생했다.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는 KIA 마무리 정해영이 주인공이 됐다.

정해영은 이날 두산 베어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5-2의 리드를 지키면서 시즌 12번째 이자 통산 133세이브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정해영은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세이브 새 기록을 만들었다.

앞선 기록은 선동열이 가지고 있던 132세이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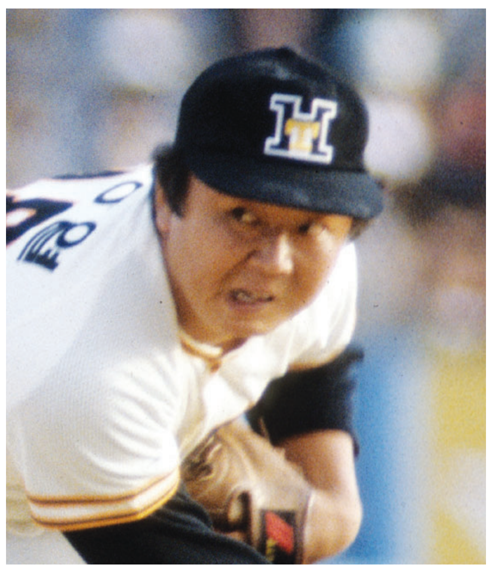
정해영은 이날 바로 자신의 기록 경신도 했다.

더블헤더 2차전에도 출격한 정해영은 4-1로 앞선 9회초에 출격해 이번에도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134세이브째를 올렸다.

정해영은 "(선동열 감독님을) 넘어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같이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큰 동기부여가 된다"며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해 나가면서 더 많은 세이브를 쌓도록 노력하겠다. 지금은 개인 기록보다 팀이 올라가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년 1차 지명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정해영은 프로 데뷔 2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마무리로 역할을 시작했다. 정해영은 전문 마무리로 나선 첫해 34세이브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32세이브를 수확해 타이거즈 최초 2년 연속 30세이브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23세이브를 올리면서 3년 연속 20세이브를 달성했다. 이 역시 타이거즈 최초다.

정해영. 〈KIA 타이거즈 제공〉



선동열. 〈광주일보 자료 사진〉

2024시즌에는 KBO리그 최연소 100세이브를 장식하면서 데뷔 첫 세이브왕(31세이브)에도 올랐다.

올해도 세이브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광주 롯데전에서 23세 8개월 20일의 나이에 두 자릿 수 세이브를 채우면서 KBO 리그 역대 최연소 5시즌 연속 10세이브 기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대전에서는 한화 에이스 폰세가 34년간 잠들어 있던 선동열의 기록을 깨웠다.

폰세는 SSG 랜더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8이닝 2피안타 무실점의 피칭을 했다. 특히 24개의 아웃카운트 중 18개를 삼진으로 채웠다.

이와 함께 1991년 6월 19일 선동열(당시 해태)이 빙그레(현 한화)를 상대로 장식한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34년 만에 이룬 대기록으로 정규 이닝으로 따지면 폰세가 앞선다.

1991년 선동열은 연장 13회까지 피칭을 하면서 18K를 이뤘다.

정규 이닝 기록으로는 2010년 5월 11일 청주 LG전에서 류현진이 기록한 17개가 최다. 이에 따라 폰세는 팀 동료 '몬스터' 류현진을 넘어 34년 만에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편 선동열은 선발은 물론 마무리로도 특급 활약을 하면서 통산 367경기에 나와 1.20의 평균자책점으로 146승 132세이브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